

CK사업정책 향후 추진방향

2007. 8. 31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정 성 찬

목 차

I 추진경과

II 추진현황

III 1차년도 사업추진 평가

IV 평가지표 개선

V 향후 사업추진 방향





추진경과

'05. 5. 16	균형위원장, 교육부총리, 산자부장관 간 CK사업추진 방향 논의
'05. 12. 22	균형위, 교육부, 산자부, 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회의
'06. 1. 27	균형위에서 CK사업 추진방안 수립
'06. 3. 10	미국 UCSD 커넥트 연수
'06. 6. 27	CK사업단 선정
'06. 7. 1	CK사업 1차년도 시행
'06. 9. 17 ~ 24	미국 MIT대학 등의 TLO 연수
'06. 12 ~ '07. 1	CK사업 추진점검 및 컨설팅
'07. 1. 24	커넥트 코리아사업 활성화와 산학협력 워크숍
'07. 2. 1	제1회 연구소 선도 TLO 워크숍 개최
'07. 2. 4	영국 캠브리지 대학, 옥스퍼드 등의 TLO 연수
'07. 4. 30	CK사업단 연차평가
'07. 6 ~ 7	CK사업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



Ⅱ

추진 현황

1. 일반 추진현황

가. 사업단 선정



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총 28개 사업단 지원

- 대학 산학협력단 18개, 연구기관 TLO 10개 등 총 28개 사업단 운영



‘06년 예산: 80억 투입

- 대학 산학협력단 : 최고 3.9억원, 최저 2억원

- 연구소 : 최고 2.5억원, 최저 1.5억원 (전담인력 인건비: 60% 이내)



Ⅱ

추진현황

나. 전문인력 확충

● 변리사, 기술거래사, 석·박사학위자 등 전문인력 확보

- 대학 부분 : 72명 (사업 시행전) → 117명 (사업 시행후)
- 연구소 부분: 68명 → 89명 ↑

● 기술DB 및 연구실DB 구축

- 기술수요조사 및 수요기업발굴, 연구정보, 연구성과정보, 특허분석 등

다. 대학 산학협력단 : 거버넌스체제 구축

● 연구개발계약, 연구비 집행, 지식재산권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사업 등의 조직

Ⅱ

추진 현황

2. 주요 추진현황

가. 대학 산학협력단



연구성과의 권리화



〈산학협력단 국내특허현황 (단위: 건)〉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Ⅱ

추진 현황



기술이전 수입료



〈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수입료 현황(단위: 백만원)〉



Ⅱ

추진 현황

나. 공공연구기관 TLO



기술이전

<10개 연구소 TLO의 기술이전건수 현황>

<단위: 건>

연도	2004	2005	2006
이전건수	237	263	332



기술이전 수입료

<10개 연구소 TLO의 기술이전 수입료 현황>

연도	2004	2005	2006
금 액(천원)	11,292,057	13,669,444	14,276,420

※ '03년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료 금액이 매우 컸음



Ⅱ

추진현황

다. 주요 커넥트 프로그램 운영현황



대학

- 한양대 Lab. 컨설팅 및 3C, 포항공대 입주기업 CEO포럼, 경북대 Alice Friday (R&BD Community), 성균관대 연구실 코디네이터, 연세대 기술군별 특허분석 및 특허평가
- 포항 스프링보드, CONTACT CHOSUN, KAIST 종합기술병원 및 KVN
- CHOSUN-HOPE 등 지역별 기능별 공동기술설명회 개최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Techno-Fair 등 전체 워크숍 개최



연구소

- 기계 연구원의 기술이전 라운드 테이블, 생명연의 Connect KRIBB, RIST의 Open House, 기술군별 특허분석 및 특허평가, 기술이전 및 사업화 포트폴리오 작성 및 특허맵 사업
-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발굴, 기업 IR기회제공, 연구소 기업 설립여건 마련 및 지원



Ⅲ

1차년도 사업추진 평가

● 전체적으로 아직도 CK사업에 대한 인식부족

- 대부분 산학혁신주체들이 CK사업이 특허관리나 기술이전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생각
- 혁신주체들의 만남의 장 프로그램인 기술교류활동비와 기술마케팅 예산지원비중이 대체적으로 낮음

● 특허청, 중기청, 정통부, 대덕특구 등의 산학협력사업과 CK사업과의 연계 미흡

● 여전히 산 학 연간의 “신뢰” 부족

- 연구개발용역계약서→산학 모두 불평등 계약(일부 대학 : 노예계약서 형태)??

● 기술 공급자 중심의 사업운영

- 기술수요자인 기업관점에 보는 시각 부족 → 철저한 기업중심운용

Ⅲ

1차년도 사업추진 평가

● **현행 평가지표에 의해 대부분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, 기술료 수입 증대 부분에 국한하여 대부분 사업 운영??**

- 일부 사업단에서 커넥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한적이면서 일시적으로 수행

● **CK사업단 별로 특색있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미흡**

- 전체적으로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
- 내생적인 산학협력, 커넥트 활동 미흡
- 산학협력단장의 순환보직으로 업무 효율 저하

● **사업관리기관간의 연계 부족**

- 사업관리기관이 각 사업단에 중복된 업무 요구

IV

평가지표 개선

기술이전 평가항목(40점) : 1차년도와 동일

- 기술이전 건수, 수입료, 정보구축 등

차년도 사업계획(10점)

CK 프로그램 평가항목 추가(50점)

구분	평가요소		INPUT 성과	OUTPUT(정량 및 정성적) 성과
			항 목	항 목
커 넥 트 프 로 그 램	필 수 사 항	기반구축 관련 프로그램	자문위원회 구성여부 및 운영횟수	업무협약 및 자문건수
			특허기술DB, 특허관리지원,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	DB 및 홈페이지 구축, 특허출원여부 결정과정, 연구성과 관리 등의 확실성
	만남 및 교류의 장 프로그램		지역 기업의 기술수요조사 건수	수요기술을 연구개발에 반영한 실적
			기업가, 연구자, 비즈니스(금융, 법률, 회계 등) 간의 산학협력 포럼, 세미나, 워크샵 개최 및 자유로운 정보교환, 개발기술소개, 기술창업 성공사례 소개	기술지도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건수
				공동 및 수탁연구개발 건수
				산학연간 인력교류 건수 및 인원수

IV

평가지표 개선

구분	평가요소		INPUT 성과	OUTPUT(정량 및 정성적) 성과
			항 목	항 목
커넥트 프로그램 (50)	필수 사항	스프링 보드 프로그램	기술전문가, 기업가, 금융·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창업교육·자문, 사업계획서 지도를 실시한 건수	졸업 기업수, 포기 기업수 및 기술창업건수
				투자유치 금액
	선택 사항	기술평가관련 프로그램	자체 기술평가 실시 및 외부 기술평가 의뢰건수 등	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한 자금지원,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여부
		내·외부 교육 프로그램	연구자 등에 대한 기술평가, 특허관리, 기술이전 등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수	산학협력단 및 TLO 근무여부
		인센티브관련 프로그램	연구자 연구실적 반영	실 적
			우수 신제품상, 우수기업인상 등	
가점사항 (10점)	각 사업단별 창의적인 프로그램	홍보관련 프로그램	신제품 홍보, 기술이전박람회 개최 및 참가	판매 계약실적
			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프로그램	실 적

V

향후 사업추진 방향

-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기술DB 등의 구축
- 산학협력단장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
 - 보유기술 발굴, 관리 및 기술이전,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 실시
 - 선진국 해외연수실시

- 지역 및 사업단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CK사업 홍보강화

- CK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, 기술사업화 매거진, Annual Report, 백서 등의 발간 및 배포

특허청,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

- 개선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되,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심으로 사업 평가
-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단별 예산 차등지급
- 3차년도까지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하의 30%(C등급)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청한 산학협력단 및 TLO와 비교평가한 후 지원대상 선정 (반드시 1-2개 사업단 탈락시킬 예정)

예산집행관련

- 인건비 지원 비중을 단계적 · 점진적으로 40%까지 축소하여 운영하되, 다양한 만남의 장,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등 커넥트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운영

‘07. 12 추진점검 및 컨설팅

‘08. 1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평가실시

다녀왔습니다

1512.45 431—403.57

111.5500

011.04 2201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